

이대호, 6년만의 친정복귀

롯데 자이언츠와 4년 총액 150억원에 자유계약 체결

‘빅보이’ 이대호(36)가 6년 만에 친정팀 롯데 자이언츠로 돌아온다. 롯데는 24일 이대호와 계약기간 4년 총액 150억원에 자유계약(FA)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2011년 시즌을 마치고 이듬해 일본 프로야구 오릭스에 입단한 이대호는 2014년 소프트뱅크와 미국 메이저리그(MLB) 시애틀 매리너스를 거쳐 6년 만에 부산 땅을 밟는다.

2001년 롯데에서 KBO 리그에 데뷔한 이대호는 2010년 174안타를 비롯해 2011년까지 KBO 리그에서 총 1250안타를 때렸다.

이후 일본에서 총 622안타를 기록하며 2015년 MIB 진출에 성공했다.

시애틀과 1년 계약을 맺은 이대호는 풀타임 시스템(한 포지션에 두 선수를 번갈아 가용)으로 많은 출전 기회를 잡지 못했다.

104경기에 출전해 타율 0.253(292타수 74안타) 14홈런 49타점 33득점의 성적을 거뒀다.

계약기간이 끝난 후 시애틀은 이대호와 재계약을 고려했지만 이대호는 계약의 최우선 조건으로 ‘출전 기회’를 제시했다. 결국 재계약은 무산됐고 이대호는 국내와 일본을 놓고 고민을 거듭했다.

한국 나이로 서른다섯. 이대호는 현역 생활의 마지막을 롯데에서 보내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롯데와 마음이 통했다. 롯데 역시 프랜차이즈 스타를 놓칠 수 없었다.

롯데는 이대호에게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냈다.

롯데 이윤원 단장이 지난주 이대호가 개인 훈련 중인 시애틀까지 찾아가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제시했다. 이대호 역시 롯데의 진심을 느꼈고 친정팀 복귀를 결심했다.

이대호는 “미국에서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또 꿈을 이뤘다. 남은 것



이대호가 친정팀 롯데 자이언츠로 돌아온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관화문 교보문고에서 열린 동갑내기 세 친구가 말하는 메이저리그와 야구인생 야구야 고맙다 출간 기념 사인회에서 이대호가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은 롯데 자이언츠로 돌아와 팀 동료들과 함께 우승을 하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었다. 이를 꼭 이루고 싶다. 마음으로 대하고 가치를 인정해주신 구단에도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롯데는 올 시즌을 앞두고 황재균을 놓치면서 타선에서의 파괴력이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대

호의 합류로 황재균의 빈자리를 메꿀 수 있게 됐고 타선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이대호는 꺼져가던 부산의 야구 열기를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민근기자

‘대학시절 불법도박’ 프로농구 이대성 10경기·박병우 22경기 출전정지

대학 시절 불법 스포츠도박을 한 사실이 적발된 프로농구 이대성과 박병우가 각각 10경기와 22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남자 프로농구를 주관하는 KBL은 24일 재정위원회를 열고 오는 28일 병역 복귀 예정 선수인 이대성(모비스), 박병우(동부)의 불법 스포츠도박 건과 관련한 징계를 심의해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0월29일 불법

스포츠도박에 관련된 선수들의 징계 심의 결정 당시에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당시 군인 신분으로 군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심의와 징계를 제대 복귀 시점으로 미뤘다.

재정위원회는 당시 재정위원회의 징계 수위를 감안해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박병우에게 22경기 출전정지와 제재금 425만원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대성에게

10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225만원 및 사회봉사 60시간 징계를 내렸다. 제재금은 연봉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번 징계로 이대성은 2월22일 이후 경기부터, 박병우는 플레이오프부터 출전이 가능하다.

사회봉사는 시즌 중임을 감안해 차기 시즌 선수 등록 기한인 올해 6월 30일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민근기자

핸드볼 국가대표 선발 공개 테스트 적용

체력 테스트 결과 토대 내달 22일 대표선수 선발... 상비군 제도도 도입

대한핸드볼협회가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 선발에 공개 테스트와 경쟁체제를 도입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표선수 선발 및 관리가 가능한 것은 물론 대표급 선수들이 선의 경쟁을 펼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 16~18명의 대표선수를 확정하고 10~12명의 상비군을 추가 선발한다. 부상이나 기량 부진 등이 발생할 경우, 상비군에서 선수를 총원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감독이 선수 명단을 경기력향상위원회에 제출하면, 회의를 거쳐 최종 승인하는 방식이었다.

협회는 “대표팀 선발에 전무후무한

지구력, 유연성 등 10개 항목에 걸친 전문 체력 테스트를 함께 측정받았다.

강재원 대표팀 감독과 경기력향상위원회는 평가전과 체력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22일 대표 선수를 선발할 계획이다.

중 16~18명의 대표선수를 확정하고 10~12명의 상비군을 추가 선발한다. 부상이나 기량 부진 등이 발생할 경우, 상비군에서 선수를 총원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감독이 선수 명단을 경기력향상위원회에 제출하면, 회의를 거쳐 최종 승인하는 방식이었다.

협회는 “대표팀 선발에 전무후무한

공개 테스트와 경쟁체제, 상비군제를 도입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표선수 선발 및 관리가 가능한 것은 물론 대표급 선수들이 선의 경쟁을 펼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핸드볼의 대표 선수 선발 방식 변화는 지난해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이후 진행된 중장기발전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협회는 여자대표팀뿐 아니라 남자대표팀, 남녀 주니어대표팀 선수 선발에도 동일한 기준과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김민근기자

무주군 전지훈련 및 대회 개최지로 각광

2017 무주 WI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지 무주군 전국 시·도 학교 태권도선수들의 기합소리로 우렁차다.

군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전국 25개교 368명의 선수들이 무주군 민체육센터에서 동계훈련을 하고 있으며, 서울과 경기도,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남도, 세종시, 울산시, 전라북도 등에 소재해 있는 학교들이 참가했다.

이번 전국 시도 학교태권도 선수부 동계 합동훈련은 무주중학교 학교태권도선수부가 주관하고 무주군이 후원하는 것으로 선수들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기초체력과 정신강화 훈련을 받고 있으며 이미지 트레이닝과 인성교육, 팀 대항 평가전과 전술훈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수들은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무주 세계 태권도경기 무주에서 훈련을 하니까 마음 가짐이 새롭다”며 “태권도 종주국

을 대표하는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 우수한 실력은 배우고 스스로 부족한 점은 채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주군 관계자는 “이번 훈련이 앞으로 우리나라 태권도를 이끌어 갈 꿈나무들에게 태권도인과 태권도성지 무주, 2017 무주 WI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일리는 기회가 된 동시에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 계기로 됐다”고 전했다.

/무주=전문기자

태권도원 KTA 상임심판 교육, 교육열로 ‘후끈’

2박3일간 250명 참가

태권도원에서는 2박3일간 “KTA(대한태권도협회) 상임심판교육”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참가자들의 교육열(교육열) 한겨울 태권도원이 후끈하다.

28일부터 오늘까지 태권도원에서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상임심판 교육에는 250여명의 참가자들이 함께하며 열띤 강의와 토론 그리고 실기교육이 진행 중이다.

교육내용으로는 겨루기와 품새 경기 규칙, 품새 실기 심판수신호 실기 영상판독 개요 및 사례교육, 채점기 사용법 등으로 실습과 이론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KTA 상임심판교육에 참가 중인 엄영섭 대한체육회 상임심판은 “훌륭한 시설과 여건 속에서 상임심판 교육이 이루어져 매우 만족스럽고, 동계 전지



훈련을 하는 선수들에게 더 없이 좋은 환경이다.

특히, 태권도원의 환경미화를 담당하는 분들에게 모든 태권도진흥재단의 직원들이 친절히 대해주어서 정말 감동이다”며 “상임심판 교육을 이수 후 태권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심판이 되겠다”고 했다.

태권도진흥재단 김중현 사무총장은

“현재 태권도원에는 KTA 상임심판 교육과 전지훈련팀 등 태권도의 현재와 미래를 짊어질 태권도인들이 함께하고 있어 매우 뜻 깊은 1월이 되고 있다”며 “상임심판 교육을 준비한 대한태권도협회와 재단이 더욱 더 단합하여 태권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가겠다”고 했다.

/무주=전문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감동받을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